

우리가 당신에게 이 체계적인 성경 읽기 계획을 한번 더 권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또한 특권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당신이 성경 전체를 1년안에 읽는 것을 돕는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경과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사람의 인생에 영적인 결핍과 황폐함을 주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시이다. 우리가 일부러 회피한다기 보다는 결단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약함이 문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며, 어떠한 이유로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다 준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불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부주의하고 무계획적인 태도이다.

이 성경읽기 계획을 추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이 당신이 1년동안 성경을 통독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일 성경공부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당신이 이 계획을 실행하면,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는 고상한 결심을 실천하는 것을 구속하고 방해하는 죄의 요소들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할때 느끼는 이 죄의 요소들은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때에 우선적으로 방해한다.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받아 들이는데 많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때에 우리의 영과 육은 매우 건강해진다.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고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가 매일의 중요한 습관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장 읍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12b). 매일 성경을 읽는 즐거운 훈련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는 구약성서에서 설교하는 일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신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취하고 있는 종교적 자세가 세대주의적 오류임을 생각해 보라.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 (5) 이것의 법과 교리는 오직 신약 성경만 따른다” (‘피의 흔적:- 세기를 따라 전해 내려오는 기독교인들’ - 혹은, ‘예수님의 때부터, 창립자들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침례교의 역사’ J.M.Carroll, 1931). 제가 들어 아는 성경학교 학생들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학 교과 과정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저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교수들을 알고 있다. 물론 이 불신앙의 뿌리는 거룩한 말씀을 읽지 않는데 있다. 진실로 말세가 오고 위험한 시기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딤후 3:4b)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독교에 대 배도의 시기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권면한 뛰어나고 확실한 해결책을 잊어서는 안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딤후 3:13). 그럼, 바울이 그러한 치명적이고 넓게 퍼진 영적인 전염병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

라” (딤후 3:14-17).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강조했다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하지만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지도, 묶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성경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성경읽기 방법을 충분히 훈련하는 사람은 우리의 태초 조상의 죄의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자신의 삶에서 그 죄의 힘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흠없는 완전한 성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안에서 베풀어 주신 중재와, 보증과 구원을 깊이 감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다. 그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엡 1:3). 이 모든것을 위하여, 그는 그 인생의 빛과 나침반으로 성경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그에게 확실한 방향과 그의 염려하는 기질에 확실한 비약적 발전이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우리가 성경에 심취했을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종교서적들에 빠져들어서 성경읽는 시간까지도 잃어 가면서 그 책들을 읽어 나가곤 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를 성경읽는것에 몰두하는것을 방해하는 미묘한 사탄의 방법이다. 다른 어느 무엇도 성경읽기를 대신할 수 없고 말씀 묵상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번도 성경읽기를 해 본적이 없다면 어떻게 성경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는가?

가장 가까운 서점에 가 보라 아마도 거기에서 당

신에게 좋은 영적 책을 찾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책을 찾다보면 서점 주인이 아마도 당신에게 공급은 반드시 수요와 맞아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비극적으로 이것은 일반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책이 이렇게나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 읽는 습관이 분위기나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의해 결정되거나 또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남은 가능한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떻게 영적인 갈망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한가지다.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된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앞에 앉아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단 한가지이다. (눅 10:42)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몇가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들 중에 이런 구절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음 6:63b)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믿음과 성실함으로 임할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 가운데에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 8:34,35) 하나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곧 믿음과 기대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 읽기의 어마어마한 중요성과 이런 영적 습관을 가지는 데에 따라오는 어려움을 당신이 알고 또한 이것에 대해 도움을 줄수있는 어느 것이라도 당신이 알고 있다면 참 반가운 일이다. 성경읽기에 대한 다른 계

획이나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가 끝날때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자비롭게 내려주신 영적인 기회를 낭비함으로 인한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했던 것처럼 말이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앴후...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눅 15:13b, 14a).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다가가기 원하는 결심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것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려야 한다. (약 1:17) 이 결심을 할때 당신에게 이 세상 모든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삶에서 이 요구를 채울 목적이 있다면 특별하고 개인적인 기도로서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시편119편을 묵상하기를 제안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한 문제에 기쁘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맛보아 알기를 기원한다. ✞



해외로 출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전하기 위하여

© 2011 Elijah Thomas Chacko  
저작권

이 책자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변하거나, 삭제되거나, 왜곡되서는 안됩니다. 복사본을 원하신다면

westminster.tradition@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김성직  
Translated by Seongjig Kim

첫 출판: 1995년 12월 31일;  
두번째 출판: 2011년 12월 1일

# 경건의 훈련

영원한 축복의 풍성함과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



1년동안의 균형 잡힌 성경읽기를 시행하려면 성경읽기와 동시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엘리아 토마스 차코  
ELIJAH THOMAS CHACKO